

<세션4 – Green Investment & ESG Supply Chain:바이오플라스틱의 미래>

유미란 | (주) BASF Korea, ChemCycling 아태지역 수석매니저

오늘날 기업에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필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BASF는 2015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하며, 저탄소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보존, 친환경 생산,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폐기물 최소화 등 다양한 친환경 조치를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 Global Compact, WBCSD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며, 인권 및 자연 자문 위원회를 통해 신뢰와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BASF는 책임 있는 원료 조달, 투명한 공급망, 친환경 생산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미래에는 기후 보호, 탄소중립, 순환경제, 특히나 화학적 재활용 ChemCycling 제품과 재생 가능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시장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ESG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NGO 등과의 협력이 필수이며, 강력한 파트너십이 성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실천의 목표는 기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장기적 비전과 중간 목표를 세우고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적극적 투자,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다.